

2012학년도 9월 평가원 덴동 어미 화전기 작품해설

고전 시가

※ 핵심 정리

지은이 : 작자 미상

이완근과 이학준의 희망의 문학 연대 : 조선 후기

이완근과 이학준의 희망의 문학 갈래 : 규방 가사, 화류가(花柳歌), 화수가(花柳歌), 낙유가(樂遊歌)

성격 : 훈계적, 사실적, 여성적, 한탄적

구성 : 액자 구성 - 대개 봄을 맞아 화전놀이를 준비하는 과정으로부터 시작, 그 날 화전장에서 하루를 즐기는 모습, 그리고 하산해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과 집에 도착한 뒤의 감회까지 모든 과정을 상세하게 그리고 있다. 순흥 지방의 화전놀이를 바탕으로 '덴동어미'의 비극적인 일생을 액자 구성을 통해 나타냄.

도입

화전놀이 권유, 화전놀이 준비, 관습적인 화전놀이

청춘과부의 슬픔과 방황

액자

덴동 어미의 인생 역정

초혼(16세)-예천 읍내의 장 이방 집: 신랑이 그녀를 뒤편에 죽어 죽음.

↓

개가(改嫁)-

① 아전 신분의 상주 읍내 이승발: 부자가 되지만 괴질로 남편이 죽고 빈털터리가 됨.

② 울산의 황 도령: 폭우로 인한 산사태로 남편을 잃음.

③ 옛장사하는 조 침지: 수동 별신굿에 팔 엿을 고다 불이 나서 남편은 죽고 아이는 화상을 입음.

↓

귀향(歸鄉)-60대에 덴동이를 업고 고향인 순흥으로 돌아옴. 옛 한 고리를 이고 화전놀이에 참여함.

결말

청춘과부의 깨달음, 화전놀이의 진정한 즐거움, 화전놀이의 마무리와 내년 놀이의 기약

이완근과 이학준의 희망의 문학 주제 : 조선 후기 어느 여인의 비극적이고 운명적인 삶

이완근과 이학준의 희망의 문학 특징 : 형식은 4·4조가 기초를 이루고, 문장 투식어(套式語)로 서사에서는 '이야~더라'·'어화~더라'·'저~더라', 본사에서는 '두어라'·'굿처라'·'어화', 결사에서는 '일장춘몽'·'남가일몽' 등이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완근과 이학준의 희망의 문학 의의 : 조선 후기 부녀 가사로 당대의 남성 가부장 사회상을 나타냄

줄거리 : 아전의 딸이었던 덴동 어미는 아전 집안으로 시집을 갔는데 첫째 남편이 그녀를 타다 떨어져 죽자 열일곱에 과부가 된다. 개가한 두 번째 남편의 집안은 이포가 많아 빚을 갠다가 풍비박산이 났고 남편은 그녀에서 떨어져 죽고, 셋째 남편은 떠돌아다니며 옹기를 파는 옹기 장수였는데 돌이 돌아다니면서 돈을 좀 벌었는데 병이 걸려 죽고 네 번째 남편 조 침지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불에 데어 덴동이(가) 되었기 때문에 덴동 어미로 불리게 된 것으로 한 여인의 기구한 운명을 노래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는 조선조 말엽의 가혹한 징세와 지배층의 수탈상, 당대의 화폐 경제의 발달상, 경제적 몰락으로 인한 유랑 생활과 서민들의 궁핍한 생활상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어 당대 풍속을 보여주는 자료적 가치도 가지고 있다.

출전 : 소백산 대관록

※ 내용 연구

가세 가세 화전(花煎) [진달래 따위 꽃잎을 붙여 부친 부꾸미]을 가세 꽃지기 전에 화전 가세. [청유형 어미]

이때가 어느 땐가 때마침 삼월이라

동군(東君) [태양, 봄을 주관하는 신을 뜻함]이 포덕택(布德澤) [은택을 베푸니] 하니 춘화일날 [봄이 되어 날씨가 따뜻해짐] 때가 맞고 - 겨울이 물러나고 봄이 도래함

화신평 [꽃이 피는 것을 알리는 바람]이 화공 [화가] 되어 만화방창 [萬化方暢] : 따뜻한 봄날에 온갖 생물이 나서 자라 흐드러짐.] 단청 [대궐이나 절 등의 벽·기둥·천장 따위에 여러 가지 빛깔로 그림과 무늬를 그림. 또는 그 그림이나 무

늬.] 되네.

이런 때를 잃지 말고 화전놀음 하여보세.

불출문외 [문밖으로 나가지 아니함] 하다가서 소풍도 하려니와 [하루라도 골레에서 벗어나 화전놀이를 즐기고자 하는 마음을 드러냄]

우리 비록 여자라도 흥취 [흥취 : 음이 끝릴 만큼 좋은 것이나 취미] 있게 놀아보세 [당대 아녀자들의 문밖 출입이 자유롭지 못했던 시대상을 반영함]. - 봄을 맞아 화전놀이를 가고자 함

어떤 부인은 마음이 커서 가로 [가루] 한 말 퍼내놓고

어떤 부인은 마음이 적어 가루 반 되 떠내주고

그렇저렇 주어 모으니 가루가 달달 가운일래. [쌀을 조금씩 추렴 (모임이나 놀이 따위의 비용 등으로 각자가 금품을 얼마씩 내어 거둠.)] 하여 화전 놀이를 준비함]

어떤 부인은 참기를 내고 어떤 부인은 들기를 내고

어떤 부인은 많이 내고 어떤 부인은 적게 내니

그렇저렇 주어 모으니 기를 반동이 실하구나.

늦소래 [늦대야] 가 두세 채라 짐꾼 [짐꾼 (짐을 져 나르는 사람)] 없어 어이할고.

상단아 널랑 기를 여러 삼월이 불러 가루 여라

취단일랑 가루 이고 향난이는 늦소래 여라 - 화전놀이에 쓸 물건을 준비함

열여섯 열열일곱 신부녀는 갖은 단장 옮겨 한다.

청춘사 감아들고 눈썹을 지워내니

세뵃으로 그린 듯이 아미 [누에나방의 촉수 (觸鬚)처럼 털이 짧고 초승달 모양으로 길게 굽은 아름다운 눈썹] 팔자 어여쁘다. [화전놀이를 가기 위해 화장을 함]

양색단 [빛깔이 다른 씨실과 날실로 짠 비단] 겹저고리 길상사 고장까지 [고쟁이]

잔줄누이 겹허리띠 맵시있게 잘끈 매고

광월사 [질 좋은 비단] 치마에 분홍덩기 툭툭 털어 들쳐입고

머리고개 곱게 빗어 갖기를 발라 손질하고

공단덩기 [여자의 길게 땀은 머리 끝에 드리는 형겅이나 끈] 갑사덩기 수부귀 다 남자 [오래 살고 부귀를 누리며 아들을 많이 낳으라는 뜻] 딱딱 박아

청춘주 흥춘주 [청진주 흥진주] 곱게 붙여 착착 겹어 곱게 매고

금죽절 [화려하고 값비싼 대로 만든 비녀] 은죽절 좋은 비녀 뒷머리에 살짝 꽂고 은장도 금장도 갖은 장도 녹고름에 단단히 차고

은조롱 [맥막이로 주머니 끈이나 옷끈에 차던 물건 (나무로 받들만 한 크기의 호리병처럼 만듦)] 금조롱 갖은 패물 걸고름에 빗겨 차고

일광단 월광단 머리보는 섬섬옥수 [가냘프고 고운 여자의 손] 감아들고

삼승 [석새삼베 / 성글고 굵은 베] 버선 수당혜 [울이 깊고 작은, 앞뒤에 덩굴무늬 따위를 새긴 가죽신의 하나]를 날출자로 신었구나. - 열거법으로 온갖 모양을

내는 신부녀들의 모습을 제시함

반만 웃고 씩 나서니 일행 중에 제일일세.

광한전 [달 속에 항아(姮娥)가 산다는 가상의 궁전] 선녀가 강림했다 월궁항아가 하강했다. [신부녀들이 예쁘게 차려 입은 모습]

있는 분은 그렇거니와 없는 분은 그대로하지 [형편에 따라 치장을 하라는 의미].

양대포 [감이 두껍고 질긴 피륙의 일종] 겹저고리 수품만 있게 [솜씨 있게] 지어 입고

칠승포에다 갈마물 들어 일곱폭 치마 떨쳐입고

칠승포 삼베 허리띠를 제모만 있게 둘러 띠고

굵은 무명 겹버선을 쏠쏠하게 빨아시고

돈 반짜리 짚세기 [짚신]라 그도 또한 탈속하다. - 화전놀이를 가기 위해 치장을 함

열일곱살 청춘과녀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여인] 나도 같이 놀러가지.

나도 인물 좋건마는 단장할 마음 전혀 없어

때나 없이 세수하고 거친 머리 대강 만져

늦비녀를 슬쩍 꽂아 눈썹 지워 무엇하리.

광당목 반물치마 [넓은 폭의 남빛 치마] 끝동없는 흰 저고리

흰 고름을 달아 입고 전에 입던 고장까지

대강대강 수습하니 어린무던 관기차네.

건번 집의 덴동어미 [주인의 이름으로 파란만장한 인생 유전을 겪은 인물로 첫 번째 남편이 요절했고, 세 번 개가했으나 모두 남편이 죽거나 집안이 몰락했고,

네번 째 남편과 난 아들이 불에 데어 덴동이(가) 되었기 때문에 '덴동 어미'로 불림. '덴동 어미'는 그녀의 고통스럽고 괴로운 인생의 사연을 담고 있는 이름이라

할 수 있다.] 옛 한고리 이고 가서

가지가지 가고말고 뉘들 어찌 안가릿가.

늙은 부녀 젊은 부녀 늙은 과부 젊은 과부
앞서거나 뒤서거나 일자행차 장관이라.[실제 화전 놀이를 떠나는 모습에 대한
감탄] - 덴동 어미를 불러 다른 부녀들과 화전놀이를 떠남
(중략)

한 부인이 이른 말이 좋은 풍경 좋은 놀음에
무슨 근심 대단해서 낙루한심[눈물을 떨구며 상심함] 웬일이오?
나건[비단으로 만든 수건]으로 눈물 닦고 내 사정을 들어 보소.
열 네살에 시집을 때 청실홍실 늘인 인정
원불상리[헤어지지 말자는 약속] 맹세하고 백년이나 살았더니
거우 삼년 동거하고 영결종천[죽어서 영원히 이별함] 이별하니
임은 거우 십육이오 나는 거우 십칠이라.[화전놀이를 즐겁게 즐기던 중, 한 청
춘 과부가 나서서 자신의 비극적인 인생을 토로하는 내용]
선풍도골[신선의 풍채와 도인의 골격이란 뜻으로, 뛰어난게 고아한 풍채를 이르
는 말.] 우리 낭군 어느 때나 다시 볼고.
방정 맞고 가련하지 애고애고 대답하다.
십육세 요사[요절] 임뿐이오 십칠세 과부 나뿐이지.
삼사년을 지냈으나 마음에는 안 죽었네.
이웃사람 지나가도 서방님이 오시는가.
새소리만 귀에 오면 서방님이 말하는가.
그 얼굴이 눈에 삼삼 그 말소리 귀에 쟁쟁.
탐탐하면 우리 낭군 자나깨나 잊을손가.[낭군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
잠이나 자러 오면 꿈에나 만나지만
잠이 와야 꿈을 꾸지 꿈을 꾸야 임을 보지.
간밤에야 꿈을 꾸니 정든 님을 잠깐 만나
만단정담[온갖 이야기]을 다하졌더니 일장설화[한바탕의 이야기]를 채 못하여
피꼬리 소리 깨달으니 임은 정녕 간 곳 없고
춧불만 경경[불빛이 깜박거림.] 불멸[없어지거나 사라지지 않음]하니 아까 울던
저놈의 새[임의 부재를 환기하며 임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을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가
자네는 듣고 좋다하되 날과 백년 원수로세.[꿈에 나타난 임을 보지 못하게 된
아쉬움을 새의 탓으로 돌림]
어디 가서 못 울어서 구태여 내 단잠 깨우시고.
정정한 마음 둘 데 없어 이리저리 재든 차에
화전놀음이 좋다하기 심화를 조금 풀까하고
자네를 따라 참에[참여]하니 축처감창[가서 닦치는 곳마다 어떤 느낌이 가슴에
사우쳐 슬프다] 뿐이로세.
보나니 족족 눈물이오 듣나니 족족 한심일세.
천하만물이 짝이 있건만 나는 어찌 짝이 없나?
새소리 들어도 회심하고 꽃 핀결 보아도 비창한데
애고답답 내 팔자야 어찌하여야 좋을거나.
가자하니 말 아니오 아니 가고는 어찌할고.
덴동어미 듣다가서 썩 나서며 하는 말이
가지마오 가지마오 제발 적선 가지말게.
팔자한탄 없을까마는 가단 말이 웬말이오?
잘 만나도 내 팔자요 못 만나도 내 팔자지.
백년해로도 내 팔자요 십칠 세 청상[젊어서 과부가 된 여자]도 내 팔자요.
팔자가 좋을려면 십칠 세에 청상될까?
신명도망[운명을 피하여 달아나는 일] 못할지라[인간은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
음] 이내 말을 들어보소.
나도 본래 순흥읍내 임이방의 딸[아전 집안 출신임]일러니[덴동 어미는 중인 계
급은 여러 번 개가가 가능했고 사대부 여성들은 개가를 할 수 없었다.]
우리 부모 사랑하사 어리장고리장 키우다가[곰게 곰게 자람 / 애지중지[매우 사
랑하고 귀중히 여김]]
열여섯에 시집가니 예천읍내 그 중 큰 집에
치행[길 떠날 여장을 차림.]차려 들어가니 장이방의 집일러라.
서방님을 잠깐 보니 준수비범[슬기와 풍채가 빼어나고 범상하다] 풍후하고[얼굴
이 살췌 너그러워 보이다]
구고님[시부모님]께 현알[지체 높은 사람을 찾아 뵈]하니 사랑한 맘 거룩하되
그 이듬해 처가 오니 때 마침 단오러라.
삼백장 높은 가지 추천[그네]을 뒤탈가서
추천줄이 떨어지며 공중에 매박으니
그만에 박살이라 이런 일이 또 있는가?
신정[새로 사권 정]이 미흡한데 십칠세에 과부됐네.[덴동 어미 첫 번째 남편이

그네를 뒤탈 죽은 기구한 사연이 나타난다.]

(중략)

양 곳 부모 의논하고 상주읍내 중매하니
이상찰의 며느리 되어 이승발[덴동 어미의 두 번째 남편] 후취로 들어가니
가세도 웅장하고 시부모님도 자록[자재롭고 후덕함]하고
낭군도 출중하고 인심도 거룩하되
매양 앓아 하는 말이 포[미납한 조세]가 많아 걱정하더니[남편의 집안이 망하게
된 원인]
해로[부부가 한평생 같이 살며 함께 늙음]삼년이 못 다 가서 성 쌓던 조동내
도임하고[지방의 관리가 근무지에 도착함]
엄험 중에 수급하고 수만량 이포[예전에, 아전이 공금을 집어 쓴 빛]를 추어내
니
남전복답 좋은 전지[논밭] 추풍낙엽 떠나가고[집안의 빠른 몰락을 낙엽에 비유]
인팍 줄 행랑 큰 기와집도 하루 아침에 남의 집 되고[덴동 어미가 재가한 집안
이 수만 냥 되는 이포 때문에 전답과 기와집을 팔고 몰락하게 된 상황을 설명
하고 있다. / 풍비박산(사방으로 날아 흩어짐.)]

(중략)

춘삼월 호시절에 화전놀음 와서들랑
꽃빛을랑 곱게 보고 새소리는 좋게 듣고
밝은 달은 예사 보며 맑은 바람 시원하다.
좋은 동무 존 놀음에 서로 웃고 놀다보소.[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즐기라는 말]
사람의 눈이 이상하여 제대로 보면 관계참고[어떤 마음으로 인생을 보느냐에 따
라 시름도 이겨 낼 수 있음]
고운 꽃도 새겨보면 눈이 캄캄 안보이고
귀도 또한 별일이지 그대로 들으면 괜찮은걸
새소리도 고쳐 듣고 슬픈 마음 절로 나네.
맘 심자가 제일이라 단단하게 맘 잡으면
꽃은 절로 피는거요 새는 여사 우는거요
달은 매양 밝은거요 바람은 일상 부는거라.
마음만 여사 태평하면 여사로 보고 여사로 듣지.
보고 듣고 여사하면 고생될 일 별로 없소.[인생살이도 마음먹기에 달려 있음 /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 : 화엄경(華嚴經)의 중심 사상으로, 일체의 제법(諸法)
은 그것을 인식하는 마음의 나타남이고, 존재의 본체는 오직 마음이 지어내는
것일 뿐이라는 뜻이다. 곧 일체의 모든 것은 오로지 마음에 있다는 것을 일컫는
다)]
앓아 울던 청춘과부 황연대각[환하게 모두 깨달음] 깨달아서
덴동어미 말 들으니 말씀마다 개개 율애.[모두 율다]
이 내 수심 풀어내어 이리저리 부쳐보세.[화전을 부쳐 먹으며 근심을 덜음]
이팔청춘 이 내 마음 봄 춘자로 부쳐두고
화용월태[(花容月態) : 꽃다운 얼굴과 고운 자태라는 뜻으로,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을 이르는 말.] 이 내 얼굴 꽃 화자로 부쳐두고
술술 나는 긴 한숨은 세우춘풍 부쳐두고
밤이나 낮이나 술한 수심 우는 새나 가져가게.[봄을 맞이한 자연을 즐기며 시름
을 잊음]
일춘간장[한 토막의 간과 창자라는 뜻으로, 애달프거나 애가 타는 마음을 이르
는 말.] 쌓인 근심 도화류수[복숭아꽃이 흐르는 물]로 씻어볼까.
천만첩이나 쌓인 설움 웃음 끝에 하나 없네.
구곡간장[굽이굽이 서린 창자라는 뜻으로, 깊은 마음속이나 시름이 쌓인 마음속
의 비유.] 깊은 설움 그 말[마음 먹기에 따라 고생도 견딜 수 있다는 말] 끝에
실실 풀려
삼동설한 쌓인 눈이 봄 춘자 만나 실실 녹네.(하략)
이완근과 이학준의 희망의 문학 이해와 감상

이따른 불행으로 세 번을 개가(改嫁)하며 고단한 삶을 산 덴동어미의 이야기
[덴동어미화전]는, 봄날 화전놀이를 배경으로 조선 시대 서민 여성의 삶이 생
동감 있게 그려져 있는 한글 가사 작품이다. 흥미로운 서사 속에 조선 후기의
생활사적 풍경이 풍부하게 담겨 있을 뿐 아니라 인생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신명 나게 펼쳐 내 화전가의 백미로 불리는 이 작품을 쉽고 편안한 현대 한국
어로 풀어 엮었다.

(가)

[1] 풀은 ㉠바람이 동쪽으로 불면 동쪽으로 향하고 바람이 서쪽으로 불면 서쪽으로 향한다. 다들 바람 부는 대로 쏠리는데 굳이 따르기를 피하려 할 이유가 있겠는가? 내가 걸으면 그림자가 내 몸을 따르고 내가 외치면 메아리가 내 소리를 따른다. 그림자와 메아리는 내가 있기에 생겨난 것이니 따르기를 피할 수 있겠는가? 아무것도 따르지 않은 채 혼자 가만히 앉아서 한평생을 마칠 수 있을까? 그럴 수는 없는 법이다.

[2] 어째서 상고 시대의 의관을 따르지 않고 오늘날의 복식을 따르며, 중국의 언어를 따르지 않고 각기 자기 나라의 발음을 따르는 것일까? 이는 ㉡수많은 별들이 각자의 경로대로 움직이며 하늘의 법칙을 따르고, 온갖 냇물이 각자의 모양대로 흐르며 땅의 법칙을 따르는 것과 같은 도리이다.

[3] 물론 일반적인 추세를 따르지 않고 자신의 천성과 사명을 견지하는 경우도 있다. 천하가 모두 주나라를 새로운 천자의 나라로 섬기게 되었음에도 백이와 숙제는 그것을 부끄럽게 여겼고, 모든 풀과 나무가 가을이면 시들어 떨어짐에도 소나무와 잣나무는 여전히 푸른 것이 바로 그런 경우이다. 그렇지만 우임금도 방문하는 나라의 풍속에 따라 일시적으로 자신의 복식을 바꾸었고, 공자도 사냥한 짐승을 서로 비교하는 노나라 관례를 따르시지 않았던가! 성인(聖人)도 모두가 함께 하는 부분을 위배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4] 그렇다면 많은 사람이 하는 대로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아니다! 이치를 따라야 한다. 이치는 어디에 있는가? 마음에 있다. 무슨 일이든지 반드시 자기 마음에 물어보라. 마음에 거리낌이 없으면 이치가 허락한 것이요, 마음에 거리낌이 있으면 이치가 허락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만 한다면 무엇을 따르든 모두 올바르고 하늘의 법칙에 절로 부합할 것이며, 어떤 상황에서든 마음만 따르다 보면 운명과 귀신도 모두 그 뒤를 따르게 될 것이다.

- 이용후, 「수려기(隨廬記) *」 -
* 수려기: 「따르며 살리라」라는 이름을 붙인 집에 대한 글.

(나) 내 팔자가 사는 대로 내 고생이 달는 대로

㉠ 좋은 일도 그뿐이요 그 큰 일도 그뿐이라
춘삼월 호시절에 화전놀음 와서들랑
꽃빛일랑 곱게 보고 새소리는 좋게 듣고
밝은 달은 예사 보며 맑은 바람 시원하다
좋은 동무 좋은 놀음에 서로 웃고 놀아 보소
㉡ 사람 눈이 이상하여 제대로 보면 관계찮고
고운 꽃도 새겨 보면 눈이 캄캄 안 보이고
귀도 또한 별일이지 그대로 들으면 관찮은걸

새소리도 고쳐 듣고 슬픈 마음 절로 나네
마음 심 자가 제일이라 단단하게 맘 잡으면
꽃은 절로 피는 거요 새는 예사 우는 거요
달은 매양 밝은 거요 바람은 일상 부는 거라
마음만 예사 태평하면 예사로 보고 예사로 듣지

보고 듣고 예사하면 고생될 일 별로 없소
앉아 울던 청춘과부 황연대각 * 깨달아서
덴동어미 말 들으니 말씀마다 개개 옳아
이내 수심 풀어내어 이리저리 부쳐 보세
[이팔청춘 이내 마음 봄 춘 자로 부쳐 보고
화용월태 * 이내 얼굴 꽃 화 자로 부쳐 두고
술술 나는 긴 한숨은 세류충풍 부쳐 두고
밤이나 낮이나 술한 수심 우는 새나 가져가

[A]게
일흔간장 쌓인 근심 도화유수로 씻어 불가
천만 첩이나 쌓인 설움 웃음 끝에 하나 없네
구곡간장 깊은 설움 그 말끝에 슬슬 풀려
삼동설한 쌓인 눈이 봄 춘 자 만나 슬슬 녹네

- 작자 미상, 「덴동어미화전기」 -
* 황연대각: 환하게 모두 깨달음.
* 화용월태: 아름다운 여인의 얼굴과 맴시를 이르는 말.

(다)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 초야우생 * 이 이렇다 어떠하리
하물며 천석고황을 고쳐 무엇 하리

고인(古人)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 못 배
고인을 못 배도 가던 길 앞에 있네
가던 길 앞에 있거든 아니 가고 어찌할교

[청산은 어찌하여 만고에 푸르며
[B]유수는 어찌하여 주야에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도 그치지 말아 만고상청(萬古常靑)하리라
- 이황, 「도산십이곡」 -
* 초야우생: 시골에 묻혀 사는 자신을 낮추어 이르는 말.

38.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학문에 대한 관점을 보여 주고 있다.
- ② 삶의 자세에 대한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 ③ 대상과 합일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이상을 추구하면서 사회의 모순을 비판하고 있다.
- ⑤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심리를 보여 주고 있다.

40. (나)의 인물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덴동어미는 계획적인 삶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군.
- ② 덴동어미는 본격적으로 화전놀이를 떠날 준비를 하겠군.
- ③ 덴동어미는 청춘과부에게 생명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하는군.
- ④ 청춘과부는 자연의 변화에 무감각한 사람이 되어 버렸군.
- ⑤ 청춘과부는 가난이 사람을 성숙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믿게 되었군.

41. [A]와 [B]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1점]

- ① [A]는 감정 이입을 통해 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내고 있다.
- ② [A]는 대화를 통하여 인물의 성격을 분명히 보여 주고 있다.
- ③ [B]는 자연물의 속성에 빗대어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④ [B]는 의문형 어구를 반복하여 심리적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 ⑤ [A]와 [B] 모두 반어적 표현으로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4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은 정처 없이 떠도는 인간의 운명을 의미한다.
- ② ㉡은 하늘의 별이 지상의 존재들에게 등불이 되어 준다는 의미이다.
- ③ ㉢은 마음이 상황에 따라 동요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 ④ ㉠은 성숙한 인간이 가진 안목을 의미한다.
- ⑤ ㉡은 화자가 자신의 선택에 대해 회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38-42] 갈래 복합

(가) 이용휴, '수려기'

작품해설 : '따르며 살리라'라는 의미인 '수려'라는 이름을 붙인 집에 대한 글로, 왜 그런 이름을 붙였는가를 설명한 고전 수필이다. 글쓴이는 먼저 사람은 아무것도 따르지 않은 채 혼자 가만히 앉아 평생을 살 수 없음을 지적하며, 무언인가 따라야 함을 밝히고 있다. 다만 '따름'의 기준이 시대나 국가, 각자의 천성과 사명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이치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스로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유추의 사용이나 권위 있는 인물의 사례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독자의 이해를 돕는 글로, 글쓴이의 가치관이 명료하게 전달되고 있다.

[주제] 이치에 따라 살아가는 자세

(나) 작자 미상, '덴동어미화전기'

작품해설 : 조선 후기에 지어진 장편 가사로, '화전기'의 일반적 구성처럼 놀이를 가는 흥겨운 마음으로 시작하고, 놀이를 마무리하는 아쉬움을 전하는 것으로 끝난다. 그러나 중간 부분에서는 일반적인 화전가와 달리 청춘과부가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자 화자가 덴동어미로 바뀌면서 자신의 기구한 사연을 청춘과부에게 들려주어 깨달음을 주는 내용이 삽입되어 있다. 지문은 덴동어미가 청춘과부에게 팔자를 한탄하지 말고 운명에 순응하며 즐길 수 있을 때 즐기라고 권유하는 내용이다. 괴롭고 어려운 삶의 애환을 달관과 긍정으로 극복하는 민중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평가할 수 있다.

[주제] 덴동어미의 기구한 인생과 긍정적인 삶의 자세

(다) 이항, '도산십이곡'

작품해설 : 작가가 만년에 관직에서 물러나 안동에 도산 서원을 세우고 후진을 양성할 때 지은 연시조로 학문에 열중하면서 사물을 대할 때 일어나는 감흥과 수양의 경지를 읊은 것이다. 모두 12곡으로 이루어졌으며, 작자 자신이 전6곡(前六曲)을 언지(言志), 후6곡(後六曲)을 언학(言學)이라 하였다. 언지(言志)는 도산 서원 주변의 자연 경관을 접하는 감흥을 노래한 것이고, 언학(言學)은 학문 수양에 정진하는 태도를 노래하고 있다. 보잘 것 없는 인간이 끊임 없는 수양을 통해 자연의 영원성을 닮아갈 수 있다는 발상은 작가의 도학자적인 면모를 뚜렷하게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제] 자연에서 사는 삶의 기쁨과 부단한 학문 수양의 의지

38. 비판적 사고(작품들의 공통점 파악)

정답해설 : (가)에서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이 이치에 따라 살아가는 자세를, (나)에서는 수심과 슬픔에서 벗어나 즐길 수 있을 때 즐기며 살아가는 자세를, (다)에서는 자연 친화와 학문 수양을 추구하는 자세를 드러내고 있다. 즉, 세 작품은 모두 화자의 삶의 자세에 대한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학문에 대한 관점은 부단한 학문 수양의 의지를 드러낸 (다)에만 나타난다. ③ 대상과 하나가 되려는 의지는 (가)~(다)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④ (다)는 자연애와 학문 수양을 아우르는 화자의 이상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으나, (가)~(다) 어디에서도 사회의 모순을 비판하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⑤(가)~(다)는 모두 현실을 기반으로 한 삶의 자세를 드러내는 작품으로, 현실에서 벗어나려는 심리는 찾을 수 없다.

40. 추론적 사고(시적 대상의 이해)

정답해설 : 이 작품에서 덴동어미는 수심에 차 앉아서 슬피 우는 청춘과부에게 깨달음을 주어 수심과 슬픔에서 벗어나 화전놀이를 즐기게 만들고 있다. 이는 청춘과부에게 삶의 활력을 주는 것이므로, 덴동어미가 생명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덴동어미가 계획성 있는 삶을 추구하거나 중시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② '이팔청춘 이내 마음 봄 춘 자로 부쳐 보고 / 화용월태 이내 얼굴 꽃 화 자로 부쳐 두고 / 술술 나는 긴 한숨은 세류춘풍 부쳐 두고'를 볼 때 덴동어미와 일행들은 이미 화전놀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④ 청춘과부가 자연의 변화에 관심이 없고 무감각해졌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⑤ 청춘과부는 덴동어미의 충고를 듣고 깨달음을 얻어 인식을 바꾸는 것이지, 가난이 내적 성숙의 계기가 된다고 믿게 된 것은 아니다.

41. 비판적 사고(표현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B]의 초장에서는 영원히 푸르름을 간직하는 '청산'을 예찬했고, 중장에서는 이와 대구를 이루어 밤낮으로 쉴 새 없이 흐르는 '유수'의 영원성을 예찬했다. 그리고 종장에서 '청산'과 '유수'라는 자연물의 영원성과 불변성에 빗대어 끊임없이 학문을 수양하겠다는 화자의 의지를 '만고상청(萬古常靑)하리라'라는 구절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A]는 전반적으로 동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내고 있다. ② [A]는 인물의 독백에 해당하는 것으로 대화는 찾을 수 없다. ④ [B]에 '그치지 아니하고'라는 의문형 어구가 나타나지만 반복은 아니며, 화자도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지 심리적 갈등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⑤ [A]와 [B]에는 반어적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다.

42. 추론적 사고(세부 정보의 이해)

정답해설 : ㉞은 덴동어미가 청춘과부에게 좋은 일, 나쁜 일을 따져 팔자를 한탄하지 말고 운명에 순응하라고 충고하는 말로, 상황에 따라 마음이 흔들릴 필요가 없음을 나타낸 것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여기서의 '바람'은 풀을 흔들리게 하는 자연 현상으로 정처 없이 떠도는 인간의 운명과는 관련이 없다. ② 각자의 경로대로 움직이는 수많은 별은 다양한 시대나 나라를 비유한 것이다. ④ '사람 눈'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어서 덴동어미는 '마음 심 자가 제일이라 단단하게 맘 잡으면'이라고 충고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의 '사람 눈'은 성숙한 인간의 안목이 아니라 평범한 인간의 안목으로 보아야 한다. ⑤ (다)의 화자는 천석고향(자연의 아름다운 경치를 몹시 사랑하고 즐기는 성벽)에 빠진 채 자연 속에 묻혀 달관한 삶의 모습을 보이며 만족하고 있는 것이지, 자신의 선택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

이내 나이 육십이라 늙어지니
더욱 슬퍼
자식이나 성했으면 저나 믿
고 살지마는
나이는 점점 많아 가니 몸은
점점 늙어 가네
**이렇게도 할 수 없고 저렇게
도 할 수 없다**
덴동이를 딛다 업고 본고향
을 돌아오니
**이전 강산 의구하나 인정 물
정 다 변했네**
**우리 집은 터만 남아 썩대발
이 되었구나**
**아는 이는 하나 없고 모르는
이뿐이로다**
그늘 맺던 은행나무 불개청
음대아귀(不改淸蔭待我歸)(1)라
**[A][난데없는 두견새가 머리
위에 똥똥 떠서**
불여귀 불여귀 슬피 우니 서
방님 죽은 님이로다
새야 새야 두견새야 내가 울
줄 어찌 알고
여기 와서 슬피 울어 내 설
움을 불러내나
반가워서 울었던가 서러워서
울었던가
서방님의 님이거든 내 앞으
로 날아오고
임의 님이 아니거든 아주 멀
리 날아가게
두견새가 펄쩍 날아 내 어깨
에 앉아 우네
임의 님이 분명하다 애고 탐
탐 반가워라
나는 살아 육신이 왔네 님이
라도 반가워라
근 오십 년 이곳 있어 날 오
기를 기다렸나
어이할꼬 어이할꼬 후회막급
어이할거나
새야 새야 울지 마라 새 보

기도 부끄러워
내 팔자를 내 생각하니 새
보기도 부끄럽잖지
침에 당초에 친정 와서 서방
님과 함께 죽어
저 새와 같이 자웅 되어 천
만년이나 살아 볼걸
**내 팔자를 내가 속아 기어이
한번 살아 볼라고**
첫째 낭군은 추천에 죽고 둘
째 낭군은 괴질에 죽고
셋째 낭군은 물에 죽고 넷째
낭군은 불에 죽어
이내 한번 못 잘 살고 내 신
명이 그만일세]

-작자 미상, '덴동 어미 화전
가'

(주) (1) 불개청음대아귀: 변함없이
시원한 나무 그늘을 간직하고 내가 돌
아오기를 기다림.

37. 밑글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열거를 통해 자신의 처지를 나타내고 있다.
- ② 영탄을 통해 자신의 정서를 표출하고 있다.
- ③ 의문형 어미를 사용하면서 표현하고 있다.
- ④ 대구의 기법을 활용하여 리듬감을 살리고 있다.
- ⑤ 역설적 표현으로 복합적인 정서를 드러내고 있
다.

38. 밑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덴동 어미는 다른 사람의 처지와 '이렇게도 할
수 없고 저렇게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여러 측
면에서 비교하고 있군.
- ② 변함없이 그늘 맺던 '은행나무'는 '의구'한 '이전
강산'의 한 모습을 보여 주는군.
- ③ '터만 남아 썩대발이' 된 '우리 집'의 상황은 고
향을 찾은 덴동 어미의 비극적 심정을 심화하는군.
- ④ '아는 이는 하나 없고 모르는 이뿐'인 상황은 덴
동 어미의 절망감을 더욱 증폭하는군.
- ⑤ 덴동 어미는 '내 팔자'를 언급하며 자신의 기구함
에 대한 한탄을 드러내고 있군.

39. [A]와 (보기)를 비교해 보라는 과제를 수행한 내용으
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남산 송죽에 홀로 앉아 우는 저 삐죽새야 님 죽은
흔령이어든 네 아니 불쌍탄 말이가 차마 가지로 님의
생각 간절하여 나 못 살았구나

(중략)

천리원정(千里遠程)에 님 이별하고 곡귀강남(哭歸江
南)(1)으로 나 돌아간다 차마 진정코 나 못 살았네

우수 경침에 대동강 풀리더니 정든 님 말씀에 요내
속 풀리누나 차마 진정 님의 생각 그리워 나 못 살았
구나

강촌일일(2)에 환수생(還樹生)(3)하니 강풀만 푸르려
도 님 생각이라 차마 진정 님 생각 간절하여 나 못 살
았구나

-서도 잡가 '수심가'

(주) (1) 곡귀강남: 울며 강남으로 돌아감.

(2) 강촌일일: 강촌의 하루하루.

(3) 환수생: 나무가 다시 살아남.

- ㄱ. 정서의 측면
- [A]와 달리 (보기)에는 자책을 바탕으로 한 회한
이 드러남. ... ①
- (보기)와 달리 [A]에는 죽어 찾아온 것 같은 임
에 대한 반가움이 드러남. ... ②
- ㄴ. 표현의 측면
- [A]와 (보기) 모두 어구의 반복이 드러남. ... ③
- ㄷ. 소재의 측면
-[A]의 '두견새'와 (보기)의 '삐죽새'는 임을 떠올리
게 함. ... ④
- ㄹ. 어조의 측면
-[A]와 (보기) 모두, 독백체의 어조와 다른 대상에
게 말을 건네는 듯한 어조를 사용함. ... ⑤

고전 시가 37~39.

작자 미상, '덴동 어미 화전가'

지문 이해하기

(해제) 이 작품은 화전놀이에 나선 청춘 과녀(寡女)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다가 비극적 삶으로 점철된 덴동 어미의 일생담을 듣고 나서 마음을 고쳐먹고 즐겁게 노래를 부르면서 다른 부인네들과 기쁜 마음으로 화전놀이를 끝낸다는 내용을 담은 가사(歌辭)이다. 이 글에서는 남편을 잃고 자식까지 불에 덴 상황에서 덴동 어미가 고향을 찾아 느끼는 비극적 심리를 묘사하고 있다.

(주제) 한 여인의 기구하고 억척스러운 삶의 모습

흐름 파악하기

- * 1~9행: 덴동 어미가 덴동이를 업고 고향을 찾아감.
- * 10~19행: 덴동 어미가 자신에게 찾아온 두견새를 남편의 닢으로 여김.
- * 20~29행: 덴동 어미가 남편을 잃고 살아가는 자신의 비극적 신세를 한탄함.

37. 표현상 특징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확인: 역설적 표현

역설적 표현의 특징은 앞뒤가 모순되게 표현한다는 점에 있다. 이 글에서 앞뒤가 모순되도록 표현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확인: 열거의 기법

'첫째 낭군은 추천에 죽고 둘째 낭군은 괴질에 죽고 / 셋째 낭군은 물에 죽고 넷째 낭군은 불에 죽어'에서 열거를 통해 자신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② 확인: 영탄의 어조

'~ 애고 탐탐 반가워라', '~ 닢이라도 반가워라', '~ 썩대밭이 되었구나' 등에서 영탄의 어조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확인: 의문형 어미

'물었던가', '어이할거나' 등에서 의문형 어미가 사용되고 있다.

④ 확인: 대구의 기법

'서방님의 닢이거든 내 앞으로 날아오고 / 임의 닢이 아니거든 아주 멀리 날아가게'에서 대구의 기법을 사용하여 리듬감을 살리고 있다.

38. 감상의 적절성 평가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확인: 다른 사람의 처지와 여러 측면에서 비교

덴동 어미가 다른 사람의 처지에 대해 언급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따라서 덴동 어미가 다른 사람의 처지와 '이렇게도 할 수 없고 저렇게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여러 측면에서 비교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확인: '의구'한 '이전 강산'으로서의 '은행나무'

'그늘 맺던 은행나무 불개정음대아귀라'를 볼 때, 변함없는 '은행나무'는 변해 버린 고향과 대조를 이루는 대상으로서 '의구'한 '이전 강산'의 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③ 확인: '터만 남아 썩대밭이' 된

고향을 찾은 덴동 어미는 '터만 남아 썩대밭이' 된 집의 상황을 접하고 더욱 슬퍼한다.

④ 확인: '아는 이는 하나 없고 모르는 이뿐'인

변해 버린 고향에 대한 덴동 어미의 절망감은 '아는 이는 하나 없고 모르는 이뿐'인 현실 속에서 더욱 심화된다.

⑤ 확인: '내 팔자'

덴동 어미는 마지막 부분에서 자신의 팔자를 언급하며 자신의 기구한 신세를 한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9.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확인: 자책을 바탕으로 한 회한

'자책'은 '자신의 결함이나 잘못에 대하여 스스로 깊이 뉘우치고 자신을 책망함.'을 의미하고, '회한'은 '뉘우치고 한탄함.'을 의미한다. (보기)에 자책에 따른 회한이 드러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확인: 임에 대한 반가움

[A]의 '임의 닢이 분명하다 애고 탐탐 반가워라 / 나는 살아 육신이 왔네 닢이라도 반가워라'에서 죽어 찾아온 것 같은 임에 대한 반가움이 드러나 있다. 반면 (보기)에서는 '빠꼭새'에 대한 화자의 반가움을 찾을 수 없다.

③ 확인: 어구의 반복

[A]에는 '불여귀 불여귀', '새야 새야'와 같은 어구의 반복이 나타나고, (보기)에는 '나 못 살았구나'라는 어구의 반복이 나타난다.

④ 확인: 임을 떠올리게 함

[A]의 '난데없는 두견새가 머리 위에 둥둥 떠서 / 불여귀 불여귀 슬피 우니 서방님 죽은 낮이로다'에서 '두견새'가 임을 떠올리게 함을 알 수 있고, (보기)의 '저 뻘썩새야 님 죽은 훈령이어든 네 아니 불쌍탄 말이가 차마 가지로 님의 생각 간절하여 나 못 살갓구나'에서 '뻘썩새'가 임을 떠올리게 함을 알 수 있다.

⑤ 확인: 독백체, 다른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듯한 어조

[A]에서는 두견새를, (보기)에서는 뻘썩새를 부르면서 그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듯한 어조를 사용하고 있고, [A]에서는 '이내 한번 못 잘 살고 내 신명이 그만일세', (보기)에서는 '천리원정에 님 이별하고 곡귀강남으로 나 돌아간다 차마 진정코 나 못 살갓네'라는 말에서 독백체의 어조를 사용하고 있다.

